

전남 '광주 3인방' 영입...승격 도전 속도낸다

골키퍼 이준·공격수 정지용·'베테랑 수비수' 김경재 '등지' '멀티플레이어' 양지훈·FW 윤민호·김도윤과도 FA 계약

광주FC에서 우승과 1부 리그를 경험한 이준(27)·정지용(26)·김경재(31)가 전남드래곤즈의 승격을 위해 나선다.

전남드래곤즈가 광주에서 활약한 골키퍼 이준, 공격수 정지용, 수비수 김경재를 영입했다.

188cm, 79kg의 이준은 연세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9년 포항스틸러스 유니폼을 입었고, 2021년 프로 무대에 데뷔해 6경기에 나서 7실점 1시트를 기록했다.

2022년 광주로 이적한 그는 지난 시즌까지 3년간 20경기에 나와 21실점 6클린시트의 성적을 작성했다.

이준은 2023시즌 김경민의 부상 공백 속 13경기에 나와 뒷문을 지키면서 광주 K리그2 우승에 함께 했다.

이준과 함께 전남에 새 동지를 둔 정지용은 빠른 발과 상대를 속이는 움직임이 돋보이는 측면 공격수다.

정지용은 수원공고와 동국대를 거쳐 2019년 강원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강원에서 3년간 13경기 출전에 그쳤던 그는 K3 화성FC로 임대, 25경기 7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2023시즌 안산 소속으로 30경기 1득점 4도움을 올린 그는 2024시즌 광주로 이적해 8경기에 출전했다. 측면에서 적극적인 움직임과 파괴력을 보여준 정지용은 '김현석호'의 화력을 책임지게 된다.

전남은 FA를 통해 '베테랑 수비수' 김경재도 영입했다.

김경재는 경기 조율능력과 영리한 플레이가 강점인 중앙수비수로 아주대를 거쳐 전남드래곤즈에서

프로 첫발을 내디뎠다. 프로 3년 차던 2018년 상주 상무에서 복무를 하며 기량이 성장한 그는 제주유나이티드에서 3시즌을 보낸 뒤 2023년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광주에서 2시즌을 보내면서 우승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를 경험한 그는 FA자원으로 친정팀 전남에 복귀한다.

전남은 '광주 출신 3인방' 외에 14년 차 수비수 구현준을 영입해 승격 도전에 속도를 낸다.

원발을 활용하는 구현준은 레프트백이 주포지션이지만 센터백과 왼쪽 미드필더까지 소화가 멀티자원이다.

전남은 공격 강화를 위해 양지훈(MF), 윤민호·김도윤(이상 FW)과도 FA 계약을 맺었다.

지난 시즌까지 충북청주FC에서 뛴 양지훈(25)은 패스 플레이와 전진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형과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양지훈과 동갑내기인 윤민호는 170cm, 64kg의 작지만 단단한 체격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움직임은 선보이는 선수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포워드 포



이준

정지용

김경재

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2017년 부천FC에서 프로 도전을 시작한 김도윤(26)은 지난해 안산그리너스에서 7년 만에 K리그에 데뷔해, 33경기 5득점 2도움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FA를 통해 전남에 입단한 김도윤은 하남, 호남과 함께 최전방에서 김경민의 공백을 채우게 된다.

전남은 또 대전하나시티즌에서 1부리그를 경험한 신에 측면 수비수 정강민(20)도 영입했다.

2023년 대전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정강민은 지난해 K리그 5경기에 나와 1득점을 올렸다. 김포에서 임대 선수로 뛰면서 10경기 1도움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지난 10년 포함 매우 자랑스럽다...토트넘 사랑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1년 계약 연장에 합의한 '캡틴' 손흥민(32)이 "지난 10년과 앞으로 보낼 1년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8일 토트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토트넘을 사랑한다. 토트넘은 모두가 뛰기를 꿈꾸는 클럽"이라며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앞서 토트넘은 지난 7일 구단 홈페이지와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에 대한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 손흥민과의 계약은 2026년 여름까지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 연장으로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

을 입은 손흥민은 11년 동안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됐다.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처음 토트넘과 계약을 맺을 때 5년 계약을 체결했던 손흥민은 2018년 7월 재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기간을 늘렸다.

2021년 7월 맺은 두 번째 재계약 기간이 올해 여름까지였으며, 여기에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바 있다.

"분명히 대단한 일"이라며 계약 연장 소감을 전한 손흥민은 "거의 10년 동안 토트넘과 함께했고, 앞으로 1년을 더 함께 했다. 나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는 토트넘을 사랑한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굵은 족적을 남겼다.

토트넘 소속으로 통산 공식전 431경기에 출전해 169골을 넣은 손흥민은 구단 통산 득점 4위에 오를 정도로 토트넘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2021-2022시즌 EPL 공동 득점왕(23골),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 등의 영예를 안으며 유럽 축구 무대에서 한국을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 우뚝 섰다. EPL 득점왕과 푸슈카시상 모두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대기록이다.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로 꼽히는 EPL에서 2016-2017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고, 토트넘 소속 선수로는 역대 가장 많은 도움(68개)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중심을 잡던 그는

2023년 8월부터는 소속팀 토트넘에서도 주장 완장을 차면서 구단 '레전드' 반열에 들었다.

토트넘 사람이 남다른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책임감도 드러냈다.

그는 "알다시피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두가 뛰고 싶어 하는 팀이다. 그래서 주장은 많은 책임감이 따른다"며 "주장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스스로 힘든 일을 차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최근 팀의 부진에 대해서도 "이런 힘든 시기는 언제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땀을 박차고 점프를 다시 해야 할 때다. 다시 올라서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쁜 시절이 있으면 항상 좋은 시절이 따라오게 마련"이라며 위기 극복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광주FC 해외파 박인혁 영입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프로 데뷔



광주FC가 박인혁(29·사진)으로 공격력을 강화했다. 광주는 8일 대전하나시티즌과 전남드래곤즈에서 활약한 박인혁을 영입했다.

186cm·80kg의 뛰어난 신체조건을 갖춘 그는 높은 타점과 제공권이 강점으로 뒷공간 침투와 동료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스트라이커다.

영등포공고-경희대 출신인 박인혁은 2015년 춘계연맹전 우승 활약을 바탕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박인혁은 독일 FSV 프랑크푸르트, 슬로베니아 FC 코페르, 세르비아 FK 보이보디나에서 유럽 무대를 경험한 뒤 2018년 대전을 통해 한국 무대에 뛰어 들었다.

2018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포함 33경기에 출전한 그는 7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장식했다. 2022년에는 전남으로 이적해 38경기에서 7골을 만들었다.

이후 군복무를 위해 K4리그 소속 고양 해피니스, 당시 시민축구단 등에서 활약한 박인혁은 2024시즌 K4리그 16경기 15골 3도움을 기록했다.

박인혁은 "꿈에 그리던 K리그 무대를 밟게 돼 영광이다. 믿고 기회를 준 구단에게 감사하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간절하게 임하고,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류현진 편 다저스라 익숙해"

김혜성 "마음 가는 팀서 최선"

김혜성(25)에게 가장 익숙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다.

박찬호, 류현진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빅리거의 꿈을 이룬 김혜성은 이제 다저스 내야수로 다저스타디움에 설 시간을 기다린다.

한국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은 7일 유튜브에 김혜성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혜성은 "다저스잖아요"라고 웃으며 "박찬호 선배님부터 류현진 선배님까지, 다저스에서 뛰는 모습을 방송에서 많이 봤다. 상대적으로 잘 아는 구단이기도 하고, 작년 우승팀이기도 해서 다저스 쪽에 더 마음이 갔다"고 말했다.

김혜성은 "곧 미국으로 건너가야 하니까, 조금씩 실감이 난다"며 "팬들이 응원해주셨기에, 키움에서 최선을 다해 뛰었다. 응원해주는 마음에 새겨, 미국에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오현규 멀티골...헝크 벨기에컵 4강 전인

신티트라위던에 4-0 완승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오현규(23)가 멀티골을 터트리며 소속팀 헝크(벨기에)를 벨기에컵 4강에 올려놨다.

헝크는 8일 오전 벨기에 신티트라위던의 스타이언에서 열린 신티트라위던 VV와의 2024-2025 벨기에컵 8강 원정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넣은 오현규의 활약을 앞세워 4-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헝크는 대회 4강에 진출해 2020-2021시즌 이후 네 시즌만이자 통산 6번째 우승 도전을 이어나갔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오현규는 78분을 뛰면서 전반 30분 아르네 스토이커스의 도움으로 선제 결승골을 터트리 뒤 후반 7분에는 추가 골을 넣어 2-0으로 리드를 벌이고 헝크의 완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스코틀랜드 셀틱을 떠나 벨기

에로 활동 무대를 옮긴 오현규는 정규리그에서는 아직 선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18경기에 교체 투입돼 3골 1도움을 기록했다.

벨기에컵에서는 이날까지 팀이 치른 3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고,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SK 베베런과의 32강전(헝크 2-0 승)에서 페널티킥으로 선제 결승골을 넣은 바 있다.

오현규가 헝크 유니폼을 입고 골맛을 본 것은 베베런전 이후 69일 만이다.

이날 멀티골로 오현규의 올 시즌 헝크에서의 공식전 공격포인트는 21경기 6골 1도움으로 늘었다.

헝크는 후반 18분 자카리아 엘우아디의 득점으로 3-0으로 달아났고, 승리가 굳어진 뒤 오현규는 후반 33분 톨루 아로코다레와 교체돼 먼저 경기를 마무리했다. 헝크는 후반 36분 노아 아데데지 스티븐 버그의 췌기골로 신티트라위던의 백기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벨기에 신티트라위던의 스타이언에서 열린 헝크와 신티트라위던 VV와의 2024-2025 벨기에컵 8강 원정 경기에서 헝크 오현규가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